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질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강조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는 신적 기원을 갖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난 의는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1. 이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義認, Justification)되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고,
2.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안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임을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義認, Justification)될 수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임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다른 구절¹들은 찾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에 대해,

빌립보서 3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서 난 의라**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로마서 10 :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롬 1:17 을 읽으십시오.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¹. 로마서 3: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하나 하나 살펴 보십시오.

<먼저 거룩의 의미는> ,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초월하여 멀리 멀리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넓고 넓은 간격이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을 찾아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찾아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계시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멀고 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성격이 있는데>

, 이 도덕적 성격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의는 거룩으로 인하여,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의는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도덕적 의에 불완전한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욥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15 : 14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욥기 15 : 15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 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기 15 : 16 하물며 악을 짓기를 몰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거룩으로 피조물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피조물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언제나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의 의가 거룩으로 인하여 인간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밖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새사람을 지으시고, 새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어 승리하는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남에 대하여,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하시어 의로 인정해 줄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II.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수 있는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여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이라는 말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 하나의 본체라는 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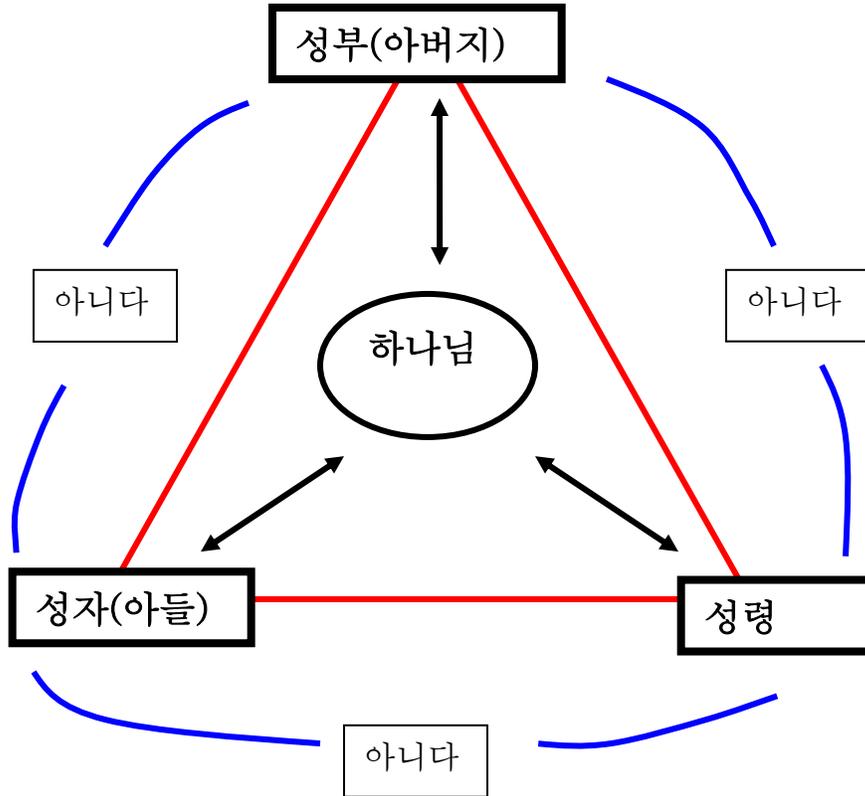
성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음 셋의 위격이라는 말은,

한분 하나님이 셋의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격적으로 볼 때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위격적으로볼 때는,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또 성령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부가 아니며, 성자도 아닙니다.

이와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계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나누어져서 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당신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증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도달하는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베드로후서 1 : 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말함으로 동일한 의임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인(God-Man)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 받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 :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 안에서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면 신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물마시듯 하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숫검덩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 들여진다는 것이 이해가 않습니다.

이 것을 설명해주는 용어가 바로 전가입니다.

II. 먼저 전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알고 가십니다.

전가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이나, 권리(right), 자격(status), 공적(merit)의 효능을 남에게도 주어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왕이 세자를 책봉하였다고 하십니다.

이 세자는 부왕이 죽으면, 부왕의 법적 권리를 이전 받아, 전적인 왕권을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적 책임이나 권리, 공적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전되어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것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 받아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 되어 구원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가는 구원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1. 아담의 죄의 전가로 우리가 죄인이 되다.

아담이 죄를 질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죄의 책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전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겨 죄의 형벌로 죽음이 왔는데

아담의 죄의 책임으로서의 형벌인 죽음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함께 사망이 왔습니다.

아담과 우리는 죄의 책임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로마서 5 : 12 이렇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가되어,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III.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과 죄를 물같이, 죄와 물을 구분 못하고 마셔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용서를 받았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죄없으신 인성의 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아, 형벌을 대신 받으시므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².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 :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². 여기서 반드시 구속자가 recapitulation 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법의 형벌과 못다한 의무를 완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 그 댓가로 벌금을 물으면 된 것이지 벌금과 군대 복무를 함께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4배를 갚으면 되는 것이지, 또다른 형벌이 따라 오지 않는다. 예수님의 경우로 말하면, 우리의 범법을 위해 십자가의 형벌로 족하지 우리의 범법을 대신한 순종은 반드시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용서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의가 있어서 용서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처벌을 받으시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죄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나 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고, 이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 :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길은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케 되었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같이 우리의 구원의 전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보자이신 이 성자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아담의 타락의 효능을 대신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음이 여러분의 생애속에서 날마다 능력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